즉시 배포용: 2020년 11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실직한 미국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재개 및 확대를 의회에 촉구

전국이 연말연시 시즌에 돌입하고 코로나 급증 단계가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프로그램 만료 예정

Cuomo 주지사: "의회는 이번 봄에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고투하고 있는 미국인 수백만 명이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지원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실직한 미국인을 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갱신 및 확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프로그램 대부분은 성탄절 당일 만료하거나 며칠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실직한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개인을 위한 혜택을 비롯해 지방 및주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정당 대표에게 서신을 보내 전국의 주에서 감염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수백만의 미국인이 실직 상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휴 시즌에 돌입하고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필수적인 연방 실업 수당 기간이 곧 만료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는 이번 봄에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고투하고 있는 미국인 수백만 명이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지원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뉴욕주는 380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실업 수당으로 55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규모는 26년의 평균 지출액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2,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현재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중 1,200만 명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실업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을 수령하는 뉴욕 주민으로부터 현재 120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6주간 기존 수당을 모두 수령한 후, 팬데믹 비상 실업

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프로그램에서 추가 13주 지원을 받는 지원자로부터 682,0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팬데믹 실업 지원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기타 기존 실업 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서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cConnell 다수당 대표, Pelosi 의장, Schumer 소수당 대표, McCarthy 소수당 대표 귀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미국은 이번 가을 또 한 번의 확진 사례 급증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혼란스럽지만, 이번 증가세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떨어지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불행히도 이러한 예측은 옳았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되었고 250,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팬데믹은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실업을 야기하여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3월까지 6,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실업 수당을 청구했으며, 이는 전국 노동자의 42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지난 주, 전국적으로 신규 신청의 숫자가 31,000 건 늘어났습니다. 이는 4주 간 청수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처음으로 주간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을 나타냅니다.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연방 정부의 반응과는 달리, 의회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봄 결정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자금 지원, 추가 실업 수당과 더불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기타 기존 실업 수당 수령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연휴 시즌이 시작되고 주정부가 다시 한번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 급증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워싱턴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완화, 경제 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이 3월에 통과되었을 때 약 1,000만 명의 미국인이 팬데믹 중에 실업 수당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현재 신청인의 수는 약 60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단 2주 만에 팬데믹 이전의 신청 건수 최고점인 695,000건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35주 동안 그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필수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올해 초 시행되었으나 이미 만료되었고, 남아 있는 소수의 프로그램은 성탄절 이후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반드시 미국인을 위한 연방 실업 수당을 갱신 및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주정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2021 연방 회계 연도 말까지 연장되거나 갱신되어야 합니다.

- ***팬데믹 실업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될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랜서, 자영업자 및 실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46 주간의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US DOL)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870 만 명의 미국인이 PUA 혜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비상 실업 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될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보험 혜택을 모두 수령한 미국인에게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실업 수당을 추가 13 주 동안 제공합니다. US DOL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440 만 명의 미국인이 PEUC 혜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완화, 경제 안정법에 따라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모든 실직 미국인에게 주당 600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7 월 말 만료된 후, 이 프로그램은 임시적으로 임금 손실 지원(Lost Wages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지만 미국인들의 지속적인 필요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으며 주정부에 행정적 부담을 야기했습니다.*
- ***공유 작업에 대한 연방 지원****— 공유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직원 고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모든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실업 수당을 활용하여 임금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공동 작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격 지원했지만, 해당 지원은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 ***지방 정부, 비영리 및 민족 업체에 대한 환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부족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인지한 연방 정부는 해당 고용주가 지불한 실업 수당의 절반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 중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주정부 실업 보험 신탁 기금 지원****— 실업 보험 청구액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전국의 주정부에서 보유한 실업 보험 신탁 기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올해 초, 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무이자로 신탁 기금을 대출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하용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업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더라도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주정부는 내년에도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실업 보험 신탁 기금 보충액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이러한 대출액 상환이 기업, 특히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들의 부채를 기업, 특히 이미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미칠 이러한 대출을 상환하는 영향을 인식하고 모든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해야 합니다.

- ***실업 보험 관리 비용에 대한 공동부담***— *모든 주정부의 실업 보험 시스템은 팬데믹 발생에 따라 대응 능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 노동부는 여러가지 신규 연방 프로그램을 수십 년된 기술에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관리 비용의 절반을 지불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100 퍼센트 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최소한 비용 공동 부담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업자 지원에 대한 주정부 능력이 크게 저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아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 2,000 만 명 이상이 10 월 31 일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업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시기에 수당 수령 인구의 13 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H.R. 925, 즉, 보건 및 경제 회복 옴니버스 비상 대책법(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HEROES Act) 의 실업 및 노동자 조항이 통과됨에 따라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프로그램 확대 실패는 곧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하는 미국인 수백만 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회는 반드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관철하는 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
전국 주지사 연합 의장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